

중년층의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Attitudes Toward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and Intention to Move to Senior Community Available Work Among the Middle Aged

조미영*
Cho, Mi-Young

조재순**
Cho, Jae-Soo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find out attitudes toward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and intention to move to senior community available to work among 50's in Pusan, Daegu, and Daejeon. The survey had been conducted in 414 respondents with questionnaire during May to June, 2003. Frequency, Crosstabs, T-test and ANOVA were obtained from the collected data using SPSS/WIN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st respondents were preparing toward work in later life somewhat actively and the level of preparation differed by individual characteristics. Those who have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subjective economic power were more active. The most preferred work item in later life were raising animals and plants, managing institution and training center and running shop. Those who have higher level of education and asset preferred managing institution and training center. Second, nearly three fourths of middle-aged have chosen leisure activities in consideration of later life and two thirds were preparing economically for leisure in later life. They have strong intention to participate in the leisure activity in later life and they also wanted to take part in various kinds of leisure activities. Those who have higher levels of education, subjective economic power, health and asset were more active in preparing leisure in later life. Third, over two thirds preferred to live and work in later life together with others rather than to live and work alone. Nearly half had intention to move to the senior community where work was available. The intention to move were differed by attitudes to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Those who were active in work and leisure in later life presented higher intention to move to senior community available work.

Keywords : senior community available work, attitudes toward work, attitudes toward leisure, intention to move

주요어 :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일 의식, 여가 의식, 입주의사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인들이 독립적인 생활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노후를 지낼 수 있도록 일과 여가활동이 가능한 자립형 노인주거형태인 노인종합복지타운 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들이 원하는 동안 일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노인자신의 요구일뿐 아니라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사회적 요청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이 가족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 왔기 때문에 노인

자신의 노후에 대한 개인적 준비뿐만 아니라 국가의 노인복지정책도 미흡한 실정이며, 가정 내에서도 산업화 이후 지속되어 온 핵가족화와 기혼여성의 취업증가로 인하여 자녀의 노인부양에 대한 의식이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들의 빈곤, 질병, 고독, 무위가 고령화사회의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부양의식의 변화와 더불어 건강, 교육수준, 경제력 등 개인적 조건이 향상된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 스스로도 자녀로부터 독립하여 생활하려는 경향이 커져 노인단독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 전용주거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우리문화에 맞는 노인주거유형 및 노후주거환경의 개발이 긴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는 실제로 모두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같은 욕구를 갖고 있는 동질의 집단이 아니며 노인들의 건강상태와 경제능력에 따라 주거에 대한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대학원 석사과정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학과 교수

본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일부임.

요구수준도 다양하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전명숙, 1994; 홍형욱 외 5인, 2004).

한편, 노인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의식도 변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 의학발달 등으로 노년기가 길어지고, 건강한 노인도 많아짐으로써 일과 여가에 대한 관심과 욕구도 강해지고 있다. 특히, 소비수준과 주거생활수준이 현재의 노인보다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노인들에게 있어서 생산적인 일과 적극적인 여가활동은 자신들이 원하는 생활수준을 유지하며, 삶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과 여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행동범위가 넓지 않은 노인이 일과 여가활동에 적극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활동에 쉽게 접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주거는 사회참여활동이 줄어들어 노인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다. 따라서 일과 여가의 접근성을 높인 노인전용주거인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노인들의 주거생활과 사회활동이 함께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노인주거대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정부가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 여가, 생산이 결합된 노인전용주거단지인 농어촌복합노인복지단지과 지방자치단체인 전북 김제시의 노인종합복지타운은 일과 여가가 있는 자립형노인커뮤니티의 필요성을 실현하고 노인주거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사례가 될 것이다. 아직까지 노인들의 일, 여가, 주거에 대한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며, 미래노인들의 변화된 일과 여가의식이 새로운 주거대안인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도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노인전용주거의 성공적인 개발과 운영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까운 장래에 이러한 주거시설의 거주자가 될 중년층의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입주의사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결과는 일과 여가가 있는 노인전용주거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부산, 대전, 광주에 거주하는 50대 중년층이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하여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입주의사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중년층의 노후의 일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이것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2) 중년층의 노후의 여가에 대한 의식은 어떠한가, 이것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본다.
- 3) 중년층의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입주의사는 어떠한가, 이것은 일반적 특성, 노후의 일에 대한 의식, 노후의 여가에 대한 의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다.

3. 용어의 정의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노인들이 모여 사는 주거로서 활동능력과 일에 대한 의욕이 있는 노인들이 커뮤니티 내에 작업장을 마련하여 각자 또는 함께 일하면서 살 수 있는 주거형태이다(홍형욱 외 5인, 2004). 즉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근접한 지역사회와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노인 주거공동체이며, 커뮤니티의 입주민들은 자신들을 위한 일의 창출을 포함한 각종의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다.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노인들의 일은 소득과 관련된 일을 입주자가 단독으로 혹은 공동으로 개발할 수도 있고, 공공기관이나 민간업체에서 주거지내에 사업장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과 관련이 없는 일이나 지역사회와 커뮤니티내의 입주민을 위한 자원봉사활동도 할 수 있으며, 작업장의 운영과정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반영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커뮤니티내의 시설개발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주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열린 공간으로서, 학생들의 특별활동, 봉사활동을 위한 학습의 장, 지역주민 또는 커뮤니티입주민들의 평생학습의 장이 될 수도 있다. 더욱이 노인이 된 자녀가 고령의 노인이 된 부모와 함께 살면서 자신의 일, 여가생활과 동시에 부모의 생활을 지원할 수도 있어서, 부모자식의 정이 각별한 우리정서에 잘 맞는 2세대 노인주거로 발전할 수 있다.

II. 선행연구 고찰

1. 노인주거욕구와 주거정책의 변화

의식주는 인간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특히 주거는 의생활과 식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평균수명이 길어진 현대의 노인들은 은퇴와 함께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녀양육의 책임으로부터 일찍 벗어나 과거에 비하여 노년기가 길어졌다. 또한 자립을 원하는 건강한 노인이 많아지면서 일과 여가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주거욕구도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울·수도권에 사는 50대 중산층 남녀 5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홍형욱 외 5인, 2004)에 의하면 70.0%가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일하면서 사는 자립형 커뮤니티가 있다면 거의 절반 가까이(44.1%) 그 곳으로 이사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일에 대한 욕구가 크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노인의 일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커지면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거를 필요로 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에 개발되고 있는 노인전용주거는 새로운 욕구를 가진 노인들을 수용하기에는 종류와 수가 매우 부

족하다. 따라서 변화된 특성과 요구를 가진 노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노인전용주거의 개발은 다가오는 고령사회의 불가피한 과제일 것이다.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정책적으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모델개발의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006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복합노인복지타운개발이 그 예이다. 복합노인복지타운은 노인주거를 기본으로, 의료와 보호, 여가와 생산 등을 복합한 도시 근교형 실버타운으로서 전국 14개 지자체 중 강원도 영월, 충남 서천, 전북 진안, 전남 곡성 등 4곳이 시범단지조성예정지로 선정되어(보건복지부, 2005) 현재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단지형 아파트문화가 1962년 대한주택공사의 마포아파트 건설로 시작되어 오늘날 일반화된 것처럼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도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여 시작되고 있지만, 이후 민간이 주도하는 다양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가 개발되어 사회적 요구와 노인복지정책에 부합되는 노인주거대안으로 발전하여 새로운 주거문화로 정착될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

2. 노인의 일

노인이 되어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여 일하는 것은 젊어서 가족 부양의무를 지고 일에 몰두하고 헌신하던 때보다는 일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적기 때문에 일이 여가가 되거나 여가 속에서 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홍형욱 외 5인, 2004). 그러므로 여유로운 시간이 많은 노인에게 있어서 일과 여가는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고독과 무위의 고통을 경험하는 노인에게는 사회참여의 기회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특히 소득이 있는 일은 노인의 빈곤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현재의 노인들은 과거와 달리 일에 대한 욕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1993년 26.5%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30.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통계청, 2004), 자신의 노후생계비용을 스스로 마련하고자 하는 의식이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중인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즉, 글자모름(60.3%), 글자해독(62.6%), 초등학교(74.9%), 중·고등학교(82.1%), 전문대 이상(95.1%)의 순으로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고학력자와 전문능력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차세대 노인들은 일에 대한 욕구가 더욱 클 것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하고 싶어 하는 고령사회의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에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3. 노인의 여가

노인의 여가란 노인이 일차적으로 노인자신을 위하여

흥미를 갖고, 자유시간에 행해진 활동 일체로 보며(나항진, 2004), 여가시간은 노동으로부터 휴식을 취하는 시간 또는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의 의미를 내포하는 시간으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개인의 심리상태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다. 따라서 여기는 시간, 활동, 심리상태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자유시간이 많은 노인의 일과 여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여가활동으로 ‘일거리 같이하기(22.5%)’, ‘하우스 등 남의 일 도와주기(6.7%)’를 한다는 연구결과(충남서천군사회복지과, 2005)와 농촌노인들이 여가시간이 있을 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기를 원하며(51.5%), 돈벌이를 하고 싶다(37%)는 연구결과(이정화·한경혜, 2003)는 노인들이 일과 여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여가욕구가 생산적,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냥 막연히 시간을 보내거나 TV시청으로 대부분의 여가시간을 보내는 정적이고 소극적인 여가가 아닌 능동적이고 적극적이며 생산적인 여가는 노인이 경험하는 무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4. 주거와 일과 여가의 접근성

노인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동성에 제약을 느끼고 있으며, 주택과 주변 환경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노인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와 보건 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통계청, 2002). 선행연구에서 노인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근접성 문제가 가장 많으며, 현재 행하는 여가행위 이외의 다양한 여가활동을 즐기기를 원하나 가까운 거리내에 없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단지 내 근린환경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각종 편의시설 및 여가시설이 주거환경권내에 구비되기를 원했으며, 아파트 단지 내 주민공유공간이 생길 경우 공동작업, 공동창고, 도서실/독서실/채택근무실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두기를 원했다(이연숙 외, 1994). 채지연의 연구(2000)에서는 여가시설을 만들 때 가장 고려할 점으로 집에서 가까워야 한다(41.8%)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들은 행동반경이 줄어들고 이동성이 감소하는 노인들에게 일·여가·주거시설의 근접성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들의 주거와 일과 여가활동의 접근성을 높인다면 주거생활속에서 일과 여가활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일과 여가의 참여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과 여가를 원하는 노인들이 많은 상황에서 일과 여가를 동시에 하면서 보호도 받을 수 있는 안정된 노인주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은 고령화 사회의 노인정책의 방향과도 일치할 뿐 아니라 적극적인 생활을 요구하는 미래의 건강한 노인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대상은 고령사회의 노인이 될 부산, 광주, 대전에 거주하는 50대의 중년이며, 이들을 성별, 주택유형별로 유형표집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수집은 2003년 5월 12일부터 6월 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450부의 자료 중 응답이 부실한 자료와 연령이 50대가 아닌 자료를 제외한 41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및 분석 방법

연구에 사용될 질문 항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일에 대한 의식, 여가에 대한 의식 그리고 자립형 노인 커뮤니티 입주의사로 구성하여 알아보았다. 각 통계처리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t-검증, ANOVA로 분석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월평균소득, 자산, 주관적 경제력, 건강상태를 알아보았다.

2) 노후의 일에 대한 의식

중년층의 노후의 일에 대한 의식은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노후에 하고 싶은 일로 알아보았다.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는 현재, 자신의 노후에 할 일에 대한 준비를 알아보는 문항으로서, '나는 내 노후에 할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노후에 할 일을 고려하여 지금 준비하는 것이 있다', '나는 노후에 일할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겠다'의 3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대한 척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척도이다. 3개 문항의 합은 총점 3점에서 12점의 범위로 신뢰도계수 $\alpha = .674$ 이며, 평균값은 2.93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가 적극적임을 의미한다. 문항의 합을 빈도분석한 후 집단의 분포를 고려하여 평균을 중심으로 적극적(54.5%), 소극적(45.5%)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중년층의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은 노인이 모여 살면서 일하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내에서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을 알아보는 것으로서, 동식물 기르기, 판매장, 위탁받은 공동작업, 교육장, 탁아소·탁노원운영, 시설운영, 민박·펜션운영의 7문항이다. 이 문항은 '전혀 원하지 않음'의 1점에서 '매우 원함'의 4점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전혀 원하지 않음'과 '원하지 않음'을 원하지 않는 집단으로, '다소 원함'과 '매우 원함'을 원하는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

3) 노후의 여가에 대한 의식

중년층의 여가에 대한 의식은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로 알아보았다.

중년층의 노후의 여가활동준비는 노후의 여가활동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가의 질문으로서, '여가활동을 선택

할 때 노인이 되어서도 할 수 있는 건지 고려한다', '노후에 원하는 여가활동을 위해 경제적 준비를 하고 있다'의 2개 문항이며, 예, 아니오의 명목척도로 구성된 문항이다.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는 노후에 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의사,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위하여 자원봉사하려는 의사, 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를 묻는 3개의 질문으로서 예, 아니오의 명목척도로 구성되었다.

4)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는 잠재적 입주의사로 볼 수 있는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과 실제적 입주의사인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노인주거로 이사할 의사를 묻는 2개의 문항으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다'의 4점 리커트척도로 구성되었다.

IV. 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은 표집할 때 통제된 특성으로, 남녀의 비율을 같이 하였다. 연령은 모두 50대로 제한한 것으로 55세 미만이 63.8%, 55세 이상이 36.2%로 평균 53.6세이다. 학력은 고졸 및 대학중퇴가 절반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50.0%), 직종은 사무직, 상공자영업, 자유업, 판매·서비스, 기능직, 노무직,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월평균소득은 2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이 절반이상(52.2%)이며, 평균소득 259.3만원으로 우리나라 도시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2,803,533원(통계청, 2002년 4/4분기)보다 낮았다. 자산은 1억 5천만원미만(36.8%), 3억원이상(33.2%), 1억 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30.0%)의 순으로 많았으며, 평균자산이 2억 58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가 생각하는 경제력은 중(57.2%)이 가장 많았으며, 중상과 중하를 모두 포함한다면 93.4%가 중간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상태는 보통이 50.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건강39.5%, 허약 9.9%로 대체로 보통 이상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

2. 중년층의 노후의 일에 대한 의식

1)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일에 대한 준비는 4점 척도로 된 3개문항의 합으로 알아보았다. 각각의 문항은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후에 내할 일이 있어야 한다(94.5%) 노후에 일할 기회를 찾겠다(78.1%), 노후에 할 일을 고려해 준비한다(49.2%)의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 이와 같은 결과는 서울·수도권 중년을 대상으로 한 홍형욱 외 5인(2004)의 연구결과와 같은 것으로 조사대상자들이 노후의 일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수	항목	N(%)
성별	남	207(50.0)
	녀	207(50.0)
연령 (평균 53.6)	55세미만	264(63.8)
	55세이상	150(36.2)
학력	중졸이하	83(20.4)
	고졸, 대학 중퇴	203(50.0)
	대졸이상	120(29.6)
직업	전문, 기술직, 경영, 관리직	75(18.6)
	사무직, 상공자영업, 자유업, 판매, 서비스, 기능직, 노무직, 농축산업	172(42.7)
	전업주부, 은퇴, 무직	156(38.7)
월평균소득 (평균 259.3 만원)	200만원미만	96(23.9)
	200만원이상 300만원미만	104(26.0)
	300만원이상 400만원미만	105(26.2)
	400만원이상	96(23.9)
자산 (평균 2억 5800 만원)	1억 5천만원미만	142(36.8)
	1억 5천만원이상 3억원미만	116(30.0)
	3억원이상	128(33.2)
주관적 경제력	하, 중하	129(31.2)
	중	236(57.2)
	중상, 상	48(11.6)
	전체	406(100.0)
건강상태	건강	163(39.5)
	보통 허약	209(50.6) 41(9.9)

표 2. 일반적 특성과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N(%)

변인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x ²	
	소극적	적극적	계		
성별	남	76(37.3)	128(62.7)	204(100.0)	11.091 ***
	녀	109(53.7)	94(46.3)	203(100.0)	
전체		185(45.5)	222(54.5)	407(100.0)	
학력	중졸이하	42(52.5)	38(47.5)	80(100.0)	7.688*
	고졸, 대학중퇴	97(48.3)	104(51.7)	201(100.0)	
	대졸이상	41(34.7)	77(65.3)	118(100.0)	
전체		180(45.1)	219(54.9)	399(100.0)	
직업	전문, 기술직, 경영, 관리직	27(36.0)	48(64.0)	75(100.0)	20.459 ***
	사무직, 상공자영업, 자유업, 판매, 서비스, 기능직, 노무직, 농축산업	61(36.3)	107(63.7)	168(100.0)	
	전업주부, 은퇴, 무직	92(59.4)	63(40.6)	155(100.0)	
	전체	180(45.2)	218(54.8)	398(100.0)	
주관적 경제력	하, 중하	60(47.2)	67(52.8)	127(100.0)	6.702 *
	중	111(47.8)	121(52.2)	232(100.0)	
	중상, 상	13(27.7)	34(72.3)	47(100.0)	
	전체	184(45.3)	222(54.7)	406(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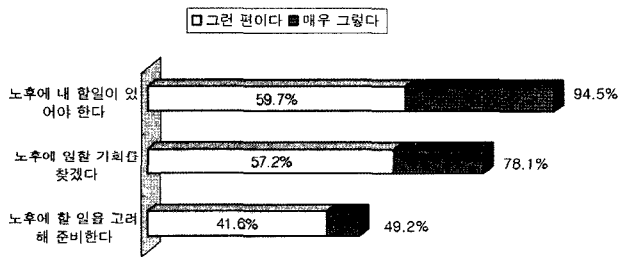


그림 1.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준비의식이 강함을 알 수 있다.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 본 결과, 성별, 학력, 직업, 주관적 경제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연령, 월평균소득, 자산, 건강상태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2>.

성별에 있어서 남자가 여자보다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가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자가 가족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학력과 경제력이 높을수록, 직업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업주부나 은퇴, 무직 집단보다 노후의 일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학력과 경제력이 높은 노인이 취업희망이 높다는 연구(박훈경, 2004)와 같은 결과로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을 계속하고 싶어 한다는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와 일을 하던 노인이 지속적으로 일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변재관, 1999)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이 있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이

같이 노후의 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한 노인들에게 거주와 함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노인들이 많이 입주하여 원하는 일을 하면서 지낼 때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성공적인 노인주거공동체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2) 노후에 하고 싶은 일

노후에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선호는 동식물 기르기가 74.2%로 가장 높았으며, 시설운영(67.9%), 교육장(60.6%), 판매장(49.7%), 탁아소·탁노원운영(46.2%), 위탁받은 공동작업(45.9%), 민박·펜션운영(38.0%)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시설운영(14.5%)과 교육장(13.2%), 동식물 기르기(12.0%)는 매우 원하는 비율도 높았으며, 이 세 가지 일과 판매장은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서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미래 노인들은 현재 노인들에게 일거리로 제공되고 있는 단순수작업위주의 위탁받은 공동작업보다 다양하고 전문적인 일을 선호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그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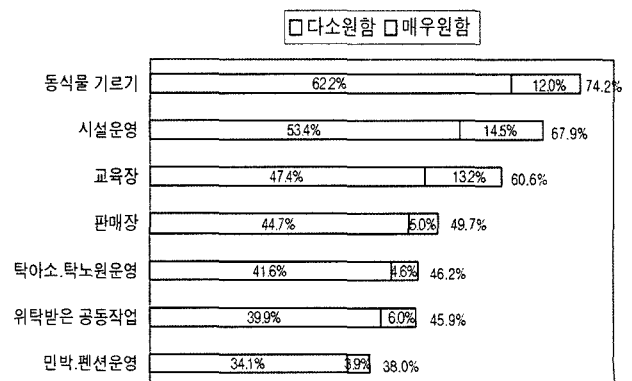


그림 2. 노후에 하고 싶은 일

표 3. 일반적 특성과 노후에 하고 싶은 일

N(%)

노후에 하고 싶은 일	변인		원하지 않음	원함	계	x ²
동식물 기르기 (채소, 과일, 닭, 오리, 벌 등)	성별	남	39(20.5)	151(79.5)	190(100.0)	5.428*
		녀	60(30.9)	134(69.1)	194(100.0)	
		전체	99(25.8)	285(74.2)	384(100.0)	
시설운영 (도서대여점, 서점, 전시관, 박물관)	학력	중졸이하	34(44.7)	42(55.3)	76(100.0)	9.550**
		고졸, 대학중퇴	59(31.6)	128(68.4)	187(100.0)	
		대졸이상	27(23.5)	88(76.5)	115(100.0)	
	자산	전체	120(31.7)	258(68.3)	378(100.0)	
		1억5천미만	52(38.2)	84(61.8)	136(100.0)	5.997*
		1억5천이상 3억미만	37(34.3)	71(65.7)	108(100.0)	
3억이상	29(24.2)	91(75.8)	120(100.0)			
전체	전체	118(32.4)	246(67.6)	364(100.0)		
	연령	55세미만	87(35.2)	160(64.8)	247(100.0)	5.338*
		55세이상	63(47.4)	70(52.6)	133(100.0)	
전체		150(39.5)	230(60.5)	380(100.0)		
교육장 (특기교육·인성교육· 상담, 학습지도)	학력	중졸이하	38(52.1)	35(47.9)	73(100.0)	8.748*
		고졸, 대학중퇴	73(39.0)	114(61.0)	187(100.0)	
		대졸이상	34(30.4)	78(69.6)	112(100.0)	
	자산	전체	145(39.0)	227(61.0)	372(100.0)	
		1억5천미만	64(47.8)	70(52.2)	134(100.0)	10.636**
		1억5천이상 3억미만	45(43.3)	59(56.7)	104(100.0)	
3억이상	34(28.3)	86(71.7)	120(100.0)			
전체	전체	143(39.9)	215(60.1)	358(100.0)		
	건강 상태	건강	48(32.2)	101(67.8)	149(100.0)	8.916*
		보통	79(41.1)	113(58.9)	192(100.0)	
허약		22(57.9)	16(42.1)	38(100.0)		
전체	전체	149(39.3)	230(60.7)	379(100.0)		
	성별	남	120(61.5)	75(38.5)	195(100.0)	9.596**
		녀	89(45.9)	105(54.1)	194(100.0)	
전체		209(53.7)	180(46.3)	389(100.0)		
탁아소·탁노원운영	연령	55세미만	124(49.2)	128(50.8)	252(100.0)	5.883*
		55세이상	85(62.0)	52(38.0)	137(100.0)	
		전체	209(53.7)	180(46.3)	389(100.0)	
위탁받은 공동작업	자산	1억5천미만	63(46.3)	73(53.7)	136(100.0)	7.913*
		1억5천이상 3억미만	57(53.3)	50(46.7)	107(100.0)	
		3억이상	76(63.9)	43(36.1)	119(100.0)	
		전체	196(54.1)	166(45.9)	362(100.0)	

*p<.05 **p<.01 ***p<.001

판매장과 민박·펜션을 제외한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은 중년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달랐는데<표 3>, 성별로는 남자가 동식물 기르기를 원하는 반면, 여자는 탁아소·탁노원을 더 원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위탁받은 공동작업을, 학력이나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에 교육장과 교육관련시설운영과 같은 전문적인 일을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장과 교육관련 시설운영과 같은 일은 학력, 경제력, 건강수준이 높은 미래노인을 위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일로서 적합할 것으로 보이며, 이들이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입주할 경우 입주민과 지역사회주민들을 위한 평생교육장과 초, 중, 고 학생들의 학습의 장으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일은 입주민의 특성에 적합

한 일이 제공되어야 입주민의 참여와 만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3. 노후의 여가에 대한 의식

1)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50대 중년들이 자신의 노후여가활동에 대한 준비하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3/4정도가 여가활동을 할 때 노년을 고려하고 있으며(73.0%), 2/3가까운 수가 노후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제적인 준비도 하고 있는(62.4%)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년들은 노후의 여가활동에 관심이 많고, 중년부터 미리 준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3>.

학력과 경제력, 건강상태가 향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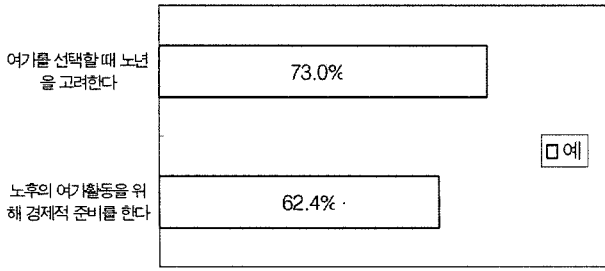


그림 3.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래 노인들은 노후의 여가를 위해서도 더 많은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과 같이 노후의 여가를 위하여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이 그들의 주거선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커뮤니티내의 여가프로그램은 그들이 중년부터 해 온 여가활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계획하면 좋을 것이다.

노후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는 학력, 주관적 경제력, 건강상태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학력이나 주관적 경제력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중년기에 이미 노후에도 할 수 있는 여가활동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후여가활동을 위한 경제적 준비는 월평균소득과 자산

이 많을수록, 주관적 경제력이 높을수록 노후여가활동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비율이 높아 노후여가활동준비는 가계경제력과 관련이 깊게 나타났다<표 4>. 이 결과는 홍형욱·유병선(2003)의 학력, 소득, 자산, 경제력, 건강조건이 좋은 집단이 여가태도가 적극적이라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통하여 학력수준과 함께 경제력, 소득, 자산 등과 같은 경제적 조건 그리고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의 여가활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적 조건이 여가활동에 매우 중요한 변수중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여가활동참여의사를 알아 본 결과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의사가 70.7%로 매우 높았으며,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할 의사(58.9%)와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협력의사(61.5%)도 절반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그림 4>. 이로써 중년들이 다방면의 노후여가활동에 참여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각각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정도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여가활동 참여의사를 알아본 결과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할 의사는 여자가 남자보다, 또한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 은퇴, 무직의 집단이 직업이

표 4. 일반적 특성과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준비

N(%)

변인		예	아니오	계	x ²	
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노후를 고려	학력	중졸이하	50(63.3)	29(36.7)	79(100.0)	5.978*
		고졸, 대학 중퇴	140(73.3)	51(26.7)	191(100.0)	
		대졸 이상	91(79.1)	24(20.9)	115(100.0)	
		전체	281(73.0)	104(27.0)	385(100.0)	
	주관적 경제력	하, 중하	78(64.5)	43(35.5)	121(100.0)	9.568**
		중	169(75.1)	56(24.9)	225(100.0)	
		중상, 상	40(87.0)	6(13.0)	46(100.0)	
	전체	287(73.2)	105(26.8)	392(100.0)		
	건강 상태	건강	113(73.4)	41(26.6)	154(100.0)	10.857**
		보통	153(76.9)	46(23.1)	199(100.0)	
허약		20(51.3)	19(48.7)	39(100.0)		
전체		286(73.0)	106(27.0)	392(100.0)		
노후여가활동을 위해 경제적 준비	월평균 소득	200만원미만	50(57.5)	37(42.5)	87(100.0)	11.248**
		200~300만원미만	53(52.0)	49(48.0)	102(100.0)	
		300~400만원미만	70(68.0)	33(32.0)	103(100.0)	
		400만원이상	69(72.6)	26(27.4)	95(100.0)	
		전체	242(62.5)	145(37.5)	387(100.0)	
	자산	1억5천미만	71(52.6)	64(47.4)	135(100.0)	14.692***
		1억5천~3억미만	72(64.3)	40(35.7)	112(100.0)	
		3억이상	95(75.4)	31(24.6)	126(100.0)	
		전체	238(63.8)	135(36.2)	373(100.0)	
	주관적 경제력	하, 중하	64(53.3)	56(46.7)	120(100.0)	12.769**
중		146(63.2)	85(36.8)	231(100.0)		
중상, 상		39(83.0)	8(17.0)	47(100.0)		
전체	249(62.6)	149(37.4)	398(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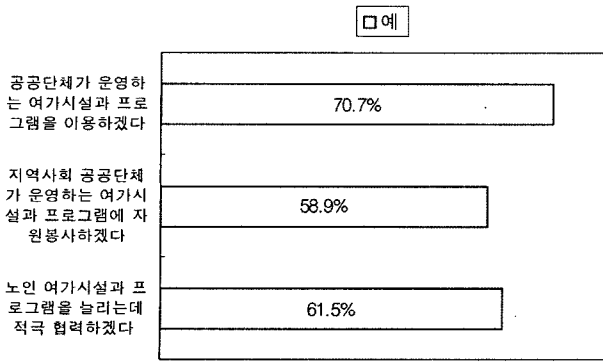


그림 4.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있는 사람들보다 참여할 의사가 높게 나타났으며,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를 할 의사는 연령이 55세 미만의 집단이, 건강한 집단이 각각 다른 집단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노인을 위한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의사는 학력이 높을수록 협력의사가 높았다<표 5>. 이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과 같은 운영과 관련된 일은 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자원봉사를 하는 것보다 적극성과 전문성이 함께 요구되므로 학력이 높은 집단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여가활동 참여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이정화·한경혜, 2003; 이기철, 2001)와 같은 결과로서, 건강상태와 학력이 높을수록 노후여가활동참여의사가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따

라서 자립형 커뮤니티에 입주한 이러한 노인들의 여가활동의 참여도는 매우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은 여가활동참여의사가 적극적인 노인에게 의해 운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4.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입주의사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입주의사 중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은 그런 편이다(61.7%)와 매우 그렇다(12.3%)가 74.0%로 나타나 조사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이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그림 5>. 이런 결과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인식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대한 수요와 잠재적인 입주의사를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또한, 노후에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로 이사할 의사는 그런 편이다(38.1%)와 매우 그렇다(7.1%)가 45.2%로 나타나 거의 절반 가까운 조사대상자가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로 이사할 의사를 보였다<그림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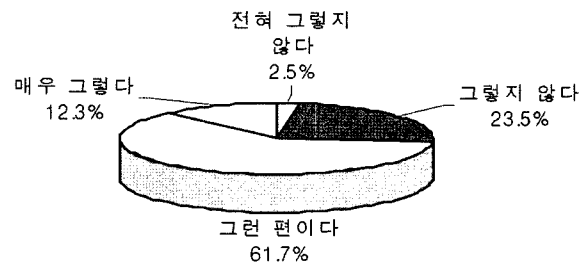


그림 5.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 의사

표 5. 일반적 특성과 노후의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의사

변인			예	아니오	계	N(%)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을 이용	성별	남	121(60.8)	78(39.2)	199(100.0)	18.671***
		녀	161(80.5)	39(19.5)	200(100.0)	
	전체	282(70.7)	117(29.3)	399(100.0)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직업	전문,기술직,경영,관리직	49(68.1)	23(31.9)	72(100.0)	20.148***
		사무직,상공자영업,자유업,판매·서비스,기능직,노무직,농축산업	100(60.2)	66(39.8)	166(100.0)	
		전업주부,은퇴,무직	127(83.0)	26(17.0)	153(100.0)	
전체	276(70.6)	115(29.4)	391(100.0)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연령	55세 미만	166(64.1)	93(35.9)	259(100.0)	8.611*
		55세 이상	69(49.3)	71(50.7)	140(100.0)	
	전체	235(58.9)	164(41.1)	399(100.0)		
노인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적극 협력	건강 상태	건강	110(70.1)	47(29.9)	157(100.0)	13.212***
		보통	103(51.2)	98(48.8)	201(100.0)	
		허약	22(55.0)	18(45.0)	40(100.0)	
전체	235(59.0)	163(41.0)	398(100.0)			
노인여가시설과 여가프로그램을 늘리는데 적극 협력	학력	중졸이하	36(45.0)	44(55.0)	80(100.0)	16.152***
		고졸, 대학 중퇴	123(62.8)	73(37.2)	196(100.0)	
		대졸 이상	85(73.3)	31(26.7)	116(100.0)	
전체	244(62.2)	148(37.8)	392(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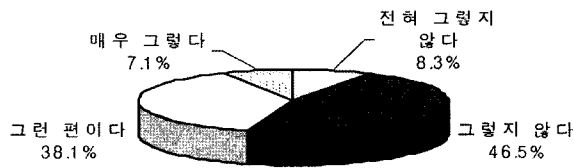


그림 6.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노인주거로 이사할

이러한 연구결과는 미래노인의 주거결정에 있어 일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재 중년이 노인이 되는 2019년 고령사회에서 통계청이 전망한 전체노인인구 14.4% 가운데 45.2%가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로 이사할 의사를 갖는다고 가정한다면 일이 있는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대한 수요가 매우 클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한편,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그 이유는 노인에게는 고독과 무위의 고통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이 이미 보편화되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여 살면서 일하는 노인주거로 이사할 의사는 자산을 제외한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자산이 1억 5천미만 집단이 모여 살면서 일하는 노인주거로 이사하려는 비율이 다른 두 집단보다 높게 나타나 이들의 노후생활안정에 필요한 소

독보장에 대한 욕구로 볼 수 있다.

노후의 일의식에 따른 입주의사<표 6>는 노후의 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집단과 노후에 판매장, 위탁받은 공동작업을 원하는 집단이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사할 의사도 높았다. 따라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이처럼 노후의 일준비가 적극적인 노인들이 입주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며, 커뮤니티에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있을 경우, 수요가 클 것을 기대할 수 있다.

여가의의식에 따른 자립형 노인커뮤니티 입주의사<표 6>는, 노후여가활동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과 노후에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확충에 협력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확충에 협력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은 이사할 의사도 높아 노후의 여가에 대한 태도가 적극적인 사람들이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입주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지금보다 더욱 긴 노년을 보내야 할 미래 고령사회노인의 자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새로운 노인주거문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차세대 고령사회노인이 될 현재 50대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태도와 노인주거의 새로운 모델로 제안된 자립형 노

표 6. 모여 살면서 일하는 노인주거에 대한 입주의사

변인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 낫다			일하면서 모여 사는 노인주거가 있다면 그 곳으로 이사하겠다			
			N	M	F	N	M	F	Scheffe
일반적 특성	자산	1억5천미만	142	2.8		142	2.61		a
		1억5천~3억미만	114	2.9	0.944	114	2.33	5.803**	b
		3억이상	125	2.81		126	2.34		b
			N	M	t	N	M	t	
노후 일의식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		소극적	184	2.68	-4.585***	185	2.22	-5.692***
	적극적	222	2.97	222	2.63				
	노후에 하고 싶은 일	판매장	원하지 않음	190	2.76	-2.286*	191	2.35	-2.021*
		원함	189	2.91	189		2.50		
위탁받은 공동작업		원하지 않음	207	2.72	-3.560***	207	2.25	-5.235***	
원함	175	2.96	176	2.64					
	탁아소·탁노원운영	예	208	2.77	-2.059*	209	2.38	-1.506	
아니오	179	2.91	179	2.49					
노후 여가의의식	노후의 여가활동 준비	여가활동을 선택할 때 노후를 고려	예	286	2.85	.534	286	2.43	-.102
		아니오	103	2.81	104		2.44		
		노후여가활동을 위해 경제적 준비	예	246	2.89	2.017*	247	2.49	1.562
	아니오	148	2.76	148	2.36				
	노후의 여가활동 참여의사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	예	280	2.91	2.909**	280	2.47	.917
아니오		115	2.69	116	2.40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자원봉사		예	232	2.89	1.816	233	2.48	1.070	
아니오	162	2.77	162	2.40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을 늘리는 데 적극 협력	예	244	2.93	3.486***	244	2.54	3.429***	
아니오	151	2.70	152	2.28					

*p<.05 **p<.01 ***p<.001

인커뮤니티의 입주의사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중년들은 노후의 일을 위하여 비교적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었으며, 성별, 학력, 직업, 주관적 경제력에 따라 노후의 일 준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력, 주관적 경제력이 높은 집단이 노후의 일에 대해서 적극적이었다. 노후에 하고 싶은 일은 동식물 기르기와 시설운영, 교육장, 판매장을 가장 선호하고 있었으며, 노후에 하고 싶은 일 중 동식물 기르기, 시설운영, 교육장, 탁아소·탁노원운영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학력과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교육장과 교육과 관련된 시설의 운영을 원하는 비율이 높았다. 따라서 현재의 중년들은 노후에도 일을 원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을 위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일은 주로 1, 2차 산업에 종사한 과거와 현재의 노인보다 다양한 특성을 갖춘 미래의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중년층은 3/4정도가 노년을 고려하여 여가활동을 선택하고 있었고, 2/3 가까운 수가 노후의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제적 준비도 하고 있었다. 학력, 주관적 경제력, 건강수준이 높을수록 노년의 여가활동을 고려하여 여가활동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가계의 자산수준이 높을수록 노후여가활동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준비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후여가활동참여의사는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에 대하여 이용할 의사, 자원봉사할 의사,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에 참여할 의사 등 다방면에서 참여의사가 높았다. 또한 각각의 참여의사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학력이 높은 집단이 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에 협력하려는 의사가 높았다. 따라서 미래노인을 위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는 여가활동은 필수요소이며, 여가프로그램은 중년부터 준비한 여가활동의 연속성을 고려하면 좋을 것이다.

셋째, 중년들은 3/4정도는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그런 곳이 있다면 이사할 의사도 절반정도나 되었다.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은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노후의 일과 여가 의식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노후 일에 대한 준비가 적극적인 집단과 노후에 판매장과 위탁받은 공동작업, 탁아소·탁노원운영을 원하는 사람들이 노후에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후

여가활동을 위하여 경제적으로 준비하고 각각의 노후 여가활동참여의사가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모여 살면서 일하는 노인주거로 이사할 의사는 일반적 특성, 노후의 일과 여가에 대한 의식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자산이 적은 집단이, 노후의 일에 대한 준비가 적극적인 사람들과 노후에 판매장, 위탁받은 공동작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노인여가시설과 프로그램의 확충에 협력할 의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일하는 노인주거로 이사할 의사가 높았다. 따라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에 원하는 일과 여가가 있을 때 주거지로 선택할 가능성은 한층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입주민의 원하는 일을 테마로 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의 연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커뮤니티는 일과 관련된 전문가와 종사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노인들이 입주하여 더불어 살아갈 수 있으며, 일과 관련된 복합문화사업을 통하여 열린 주거공간으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보호형이 아닌 진정한 자립형 노인커뮤니티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참 고 문 헌

1. 나항진(200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인 여가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4(1), 53-70.
2. 박훈경(2003). 노인취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 보건복지부(2005). *농어촌복합노인단지 조성 대상지역 선정*.
4. 변재관(1999). 노인인력 활용의 활성화 방안-서울시 노인을 대상으로. *한국복지연구*, 1999 겨울호, 91-131.
5. 이기철(2001). 노인의 여가활동 참가에 관한 연구, *외대논집*, 제22권, 299-307.
6. 이정화·한경혜(2003). 농촌노인의 일과 여가활동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농촌사회*, 13(1), 209-238.
7. 전명숙(1994). 중년층이 선호하는 미래노인주거환경. *건국대학교 대학원 가정학과 박사학위논문*.
8. 충남서천군 사회복지과(2004). *노인복지정책 참고자료*.
9. 통계청(2004). *2004 고령자 통계*.
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11. 홍형옥·이경희·최정신·김대년·조재순·권오정(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미래인력연구원·(주)지식마당*.
12. 홍형옥·유병선(2003). 노후의 일?여가태도에 따른 노인 공동 생활주택 선호경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5), 13-24.

(接受: 2005. 12. 21)